

19 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법』의 수용

—일본의 경우—

오쿠보 다케하루(大久保 健晴, 게이오대학)

【발표요지】

본 발표는 근대 역명기 동아시아에서 서양국제법이 어떻게 수용되었고, 또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위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일본에 전해진 학식(學識)과 중국을 경유해서 보급된 한역문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적원천에 초점을 맞춰 비교정치사상사의 시점으로부터 해명하려고 한다.

19 세기 동아시아는 서양열강과 대치하고 조약교섭을 진행하면서 구래의 근린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 관계성이 격동하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새로운 학술지식으로 널리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서양국제법 ‘만국공법’이었다.

동아시아 세계에 체계적인 서양국제법 지식을 전한 최초의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惠頓著・丁躋良訳 万国公法』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의 책이 존재했다. 도쿠가와정권 최초의 유럽유학생으로서 1863 년부터 2 년간에 걸쳐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니시야마네(西周)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에 의한 유학의 성과, 『畢洒林氏說・西周助訳述 万国公法』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 두 개의 『만국공법』의 비교검토를 통해 메이지 초기 일본의 학자와 관료가 어떠한 논쟁을 전개했는지, 또 그것이 메이지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근대 일의의 서양 국제법과의 사상적 격투와 그로인한 아시아 세계로의 시선의 변용을 검토함으로써,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과 ‘동아시아’의 탄생을 둘러싼 전체 토의에 공헌하고자 한다.

【약력】

게이오의숙대학 법학부 교수. 박사(정치학). 전문은 동양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 특히, 18~19 세기의 네덜란드와 일본의 교류에 주목하여 초기근대에서 근대로 도달하는 서양과 동아시아의 외교, 경제, 학술, 법을 둘러싼 교섭사를 문화횡단적 시좌에서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 도쿄도립대학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전임준교수, 네덜란드 라이덴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객원연구원, 게이오대학 법학부 준교수 등을 역임한 후 2019 년부터 현직. 주요 저작으로는 『근대 일본의 정치구상과 네덜란드』(도쿄대학출판회, 2010 년), The Quest for Civilization –Encounters with Dutch Jurisprudence, Political Economy and Statistics at the Dawn of Modern Japan– (translated by David Noble, Brill, 2014) 등이 있다.